경북일보

호숫길 걸으며 쓰레기 담아…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만운저수지서 환경정화 캠페인

오종명 기자 | 승인 2026.11.01 16:40 | 17면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진행
둘레길 걸으며 쓰레기 수거…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에 힘 보태
ESG 경영 실천 일환… 지속적인 농어촌 환경보전 활동 추진



▲ 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달 29일 만운저수지에서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지역 저수지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박승표)는 지난달 29일 안동시 소재 만운저수지 일원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농어촌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깨끗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 장소인 만운저수지는 안동지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자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자연공간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지 둘레길 곳곳을 살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호숫길 조성에 힘을 보탰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쓰담쓰담 활동을 비롯해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 환경보전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